



『삼국유사』 기이편 「處容郎 望海寺」 조의 이해

저자 (Authors)	신선혜
출처 (Source)	신라문화제 학술발표논문집 38 , 2017.6, 143-174 (32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35514
APA Style	신선혜 (2017). 『삼국유사』 기이편 「處容郎 望海寺」 조의 이해. 신라문화 제 학술발표논문집, 38, 143-17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9 14:3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삼국유사』 기이편 「處容郎 望海寺」조의 이해

신 선 혜*

<目 次>

- | | |
|-----------------------------------|---|
| I. 머리말 | |
| II. 『삼국유사』 기이편의 편제 의도와 「處容郎 望海寺」조 | 1. 현강왕대 政局과 처용설화의 결합
2. 望海寺와 新房寺의 창건 |
| III. 「處容郎 望海寺」조의 구조와 내용 분석 | IV. 맺 음 말 |

[한글요약] 「處容郎 望海寺」조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서는 『삼국유사』 기이편의 편제에 『삼국유사』의 찬술시기인 고려 당대의 시각이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찬자는 기이편의 편제를 통해 국왕을 정점으로 한 政局의 구성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을 아우르는 近侍集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이편의 편제에 고려적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處容郎 望海寺」조는 현강왕과 처용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까닭에 기이편에 편제되었다. 처용은 중앙에서 활동하는 세력이 아닌, 새로운 세력의 대명사로서, 그들이 왕의

*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대표논저 : 2015, 「『삼국유사』 「백률사」조의 종합적 검토」,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36 ; 2016, 「신라 중고기 불교교단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6, 「신라 성덕왕대 禁殺生 下敎의 배경과 의미」, 『한국고대사연구』83 ; 2017, 「신라 중고기 僧職의 설치와 僧團」, 『불교연구』46 외 다수.

近臣이 되기 위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설정한 존재인 것이다.

한편 「處容郎 望海寺」조에 나타난 현강왕대 政局에 대한 부분에도 고려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실상 현강왕대의 政局이 불안정하였음에도 당대를 태평성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에는 현강왕대 王建이 탄생하였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불안정한 정국이 조성되었던 현강왕대를 무대로 처용설화가 탄생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당시 정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魏弘이 왕권을 지원하는 인물이기는 하였으나, 언제나 왕권을 넘볼 수 있는 견제의 대상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현강왕은 魏弘에 대한 견제책으로서 중앙의 세력이 아닌, 변방의 세력을 近侍로 삼아 親政體制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현강왕대 政局과 처용설화가 결합하게 된 이유라 하겠다.

「處容郎 望海寺」조에서 또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望海寺의 창건에 대한 것이다. 望海寺에 대해서는 그것이 龍을 위해 세워졌고, '바다를 바라본다' 혹은 '바다에 제사지낸다'는 의미를 지닌 '望海'로써 사찰이름이 지어졌음에도 그것이 영축산에 창건된 점은 설명되지 않았다. 아울러 별칭으로 기재된 '新房寺'와의 관련성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런데 '新房'이 '새롭게 사찰을 옮겨 짓는다'는 '新房舍'란 불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운포에 望海寺라는 이름으로 사찰을 세운 후 다시 호국룡을 위한 여러 사찰이 세워진 영축산으로 사찰을 옮기면서 '新房寺'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영문요약]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Section 「Cheoyongrang Manghaesa(處容郎 望海寺)」 requires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composition of the Chapter Kiyi(紀異) of 『Samkukyusa(三國遺事)』 reflected viewpoints of Koryo(高麗), the Kingdom which ruled during the period when 『Samkukyusa』 was being written. In other words, it suggests that the author, through the Chapter Kiyi, highlighted not only the political scheme with the king at its peak, but also the necessity of a group of royal guards(近侍) who can cover the capital as well as the provinces. This means that the composition of the Chapter Kiyi is based on the perspectives of Koryo.

In this sense, the Section 「Cheoyongrang Manghaesa」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ing Heongang(憲康王) and Cheoyong(處容) so that the Section was included in the Chapter Kiyi. In this, Cheoyong symbolizes new forces against the active puissance of the capital, and he is a person created by

them to secure legitimacy to become henchmen of the king.

Meanwhile, in the Section 「Cheoyongrang Manghaesa」, its description about political situation during the era of King Heongang also reflects perspectives of Koryo. It depicts it as the piping times of peace in spite of the actual instability of the era of King Heongang. It suggests that these representations were influenced by the fact that King Taejo Wanggeon(太祖 王建) was born during the era of King Heongang.

Then what is the reason why the Cheoyong Folk Tale originates in the era of King Heongang which was unstable in fact? This is because the then political tycoon, Wihong(魏弘), was a person who underpins the royal authority, but at the same time, he was kept in check so as never to covet the regal power. King Heongang wanted to build up the direct royal rule with the forces not from the capital but from provinces as his henchmen to offset Wihong's influence. This is the reason why the Cheoyong Folk Tale was combined with the era of King Heongang.

Another noteworthy point in the Section 「Cheoyongrang Manghaesa」 is about the foundation of Manghae Temple(望海寺). Although Manghae Temple was founded to be dedicated to the Dragon with the name 'Manghae(望海)' which means gazing at or worshipping the ocean, its foundation in Yeongchuk Mountain(靈鷲山) was not plausible. Moreover, its connection with its alias Sinbang Temple(新房寺) was also not clear. However, it is deemed that a temple built in Gyeunpo(開雲浦) with the name of Manghae Temple was relocated into Yeongchuk Mountain which had many temples dedicated to the Palladium Dragon and then renamed as 'Sinbang Temple' since the term 'Sinbang(新房)' means relocation of a temple in Buddhism.

[주제어] 處容(Cheoyong), 紀異篇(the Chapter Kiyi), 憲康王(King Heongang), 望海寺(Manghae Temple), 新房寺(Sinbang Temple), 龍(Dragon), 靈鷲山(Yeongchuk Mountain), 魏弘(Wihong)

I. 머리말

『삼국유사』 기이편은 고조선에서부터 후삼국시기의 사실이 각 국가 및 왕대별로 기록되어 있어 『삼국유사』의 史書的 성격을 대표하는 편목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각 시대를 대표하는 사실에 대해 ‘怪力亂神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제왕이 장차 흥하러 할 때에는 반드시 神異를 지녀야만 대업을 이룰 수 있다’는 서술태도를 보여,¹⁾ 이러한 점에서는 『삼국사기』 本紀 등의 편년체적 서술방식과 다르다 하겠다. 이에 기이편의 편명을 ‘神異를 기록한다’로 보면서 그러한 서술태도를 神異史觀이라 부르기도 하였다.²⁾ 그러나 기이편을 史書의 성격으로만 일관되게 파악하지 않고 本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있으나, 신이한 일로써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서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³⁾ 관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이편이 신이함을 다루고 있고, 그것이 꾸며진 가상의 이야기가 아닌, 구체성을 띤 역사적 사실로 인식되어 기록되었던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렇듯 기이편 편제의 의도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기이편 內 조목의 구성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다. 다만 기이편의 서술 맥락을 국가 중심의 체계와 국왕 중심의 신라사 체계로 파악한 기존 연구의 연장선상에서⁴⁾ 국왕을 중심

1) 『삼국유사』 권1 기이1 叙, “則怪力亂神 在所不語 然而帝王之將興也 … 然則三國之始祖 皆發乎神異 何足怪哉 此紀異之所以漸諸篇也 意在斯焉”.

2) 이기백, 1976,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의의』, 『한국의 역사인식(상)』, 창작과 비평사 ; 김동욱, 1969, 『삼국유사 해제』, 『한국의 명저』, 현암사.

3) 金文泰, 1989, 『『三國遺事』의 體裁와 性格』, 『陶南學報』12, p. 74.

4) 이기백, 1984, 『삼국유사 기이편의 고찰』, 『신라문화』1, pp. 18~25.

으로 고려 왕조를 수호해야 한다는 당시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⁵⁾ 기존 연구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기이편 조목의 서술 순서에 따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 상 주목된다고 하겠다.

즉 기이편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목의 구성에 천착할 필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특히 조목명이 國家 내지 王名으로 설정되지 않은 조목에 주목하는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국가나 왕 이외에 사건명이나 인물명으로 조목명을 삼았다는 것은 그것이 해당 왕대를 대표함과 동시에 왕과의 관계를 대변해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의 분석을 통해 기이편 전체의 서술의도뿐 만 아니라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處容郎 望海寺」조(이하 「처용랑」조)의 기이편 편제 이유도 추측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처용랑」조에 대한 연구는 처용가를 중심으로 한 국문학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으나,⁶⁾ 이와 함께 처용의 실체 규명 과정에서 역사학적 접근 역시 시도되었다.⁷⁾ 특히 처용을 울산지방 호족의 자제로 보거나,⁸⁾ 당시 울산을 통한 이슬람과의 교역을 근거로 이슬람 상인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⁹⁾ 나아가 현강

5) 김주성, 2010, 「삼국유사 기이편 신고찰」, 『한국학논총』34.

6) 황패강·강재철·김영수 편, 1984, 「鄉歌研究史序說」, 『鄉歌, 古典小說關係論著目錄』, 단국대출판부, pp. 11~74 참고.

7) 처용과 疫神의 관계 및 가무 등의 내용을 토대로 민속학적으로 접근하기도 하였는데(김영수, 1964, 「처용무와 처용가」, 『불교학보』2 ; 김학성, 1977, 「삼국유사 소재설화의 형성 및 변이과정 試考」, 『冠嶽大語文研究』2), 대체로 처용을 巫的 존재로 보았다. 특히 손진태는 이 분야에서 최초의 성과를 내어, 처용을 門神으로 파악하였다(孫晉泰, 1930, 「處容郎 傳說考」, 『新生』18).

8) 李佑成, 1969, 「三國遺事所載 處容說話의 一分析」,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을유문화사.

왕의 아들인 曺로 보기도 하였다.¹⁰⁾ 그러나 앞선 두 견해에 대해 처용호족설은 헌강왕대 울산에 대한 신라 정부의 장악력이 높았을 것이라는 관점에서,¹¹⁾ 이슬람상인설은 당시 울산을 통해 이슬람인이 다수 유입되었다면 처용 일행을 보고 신기하게 여길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¹²⁾ 후자의 시각 역시 특정 인물에 배대하는 방식은 인물 혹은 사찰 등의 別稱을 함께 기재해 주는 『삼국유사』의 기재방식에 의한다면 납득하기 힘든 점이 있다. 오히려 앞선 견해와 같이 특정한 성격을 가진 집단의 대명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처용의 실체에 대한 이해는 그것이 기이편에 편제되었다는 점과 함께 설화의 무대가 헌강왕대라는 점에 주목하여 당대 政局과 함께 이해할 때 파악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처용랑」조의 이해를 위해서는 『삼국유사』의 편제가 그러하듯, 찬자 및 高麗代라는 찬술 당시 상황과의 관련성 역시 주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처용랑」조와 함께 『삼국사기』 헌강왕대의 기사를 살펴 고려와의 관련성을 찾아보았다. 실상 처용가가 고려 때 궁중악의 하나로 연행되었던 점은¹³⁾ 이것의 연원이 되는 헌강왕대 상황을 주목하게 하였을 것이고, 이에 당대의 서술에 고려적 시각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9) 李龍範, 1969, 「處容說話의 考察」, 『진단학보』32 ; 정수일, 1989, 「아랍-무슬림들의 신라내왕과 처용」, 『처용연구논총』, 울산문화원.

10) 金基興, 2001, 「신라 處龍說話의 역사적 진실」, 『역사교육』80, pp. 138~141.

11) 徐大錫, 1975, 「처용가의 무속적 고찰」, 『한국학논집』2 : 1989, 『처용연구논총』, 울산문화원, pp. 190~192.

12) 金基興, 2001, 앞의 논문, pp. 136~137.

13) 이명구, 1982, 「處容歌 研究」, 『高麗歌謠研究』, 새문사.

이와 함께 현강왕대 정국에서 처용이라는 존재가 필요했던 이유 역시 살펴보고자 한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 현강왕은 기존의 보좌세력뿐 만 아니라 새로운 세력의 近臣化가 필요하였을 것인데, 여기에는 경문왕대 이후 주도세력이 된 魏弘을 견제하고자 한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이에 새로운 세력들을 나라 동쪽의 州·郡 순행 시 나타난 처용의 세력으로 상정하고, 기존 세력들이 이들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 龍의 권위를 빌리고, 疫神 퇴치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설화화한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그간의 연구들에서는 처용의 실체에 주목한 나머지, 용을 위해 창건했다고 한 望海寺의 성격과 別稱으로 제시된 新房寺와의 관계를 소홀히 다룬 측면이 있다. 두 사찰의 관계는 「처용랑」조의 구조분석을 통해 선후관계 및 동일사찰 여부를 가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望海寺가 개운포 근처가 아닌 영축산에 창건되었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용과 관련한 두 사찰이 별도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처용랑」조에 현강왕대 정국에 대한 고려적 시각이 반영되었음을 밝히고, 기존 연구에서 주목되지 않은 사찰 창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삼국유사』 기이편의 편제 의도와 「處容郎 望海寺」조

『삼국유사』 기이편 조목들의 대상 시기는 고조선부터 무열왕대까지, 그리고 문무왕대부터 후백제시기까지로 크게 나뉜다. 삼국 이전까지는 국가명으로 조목명을 삼아, 건국 및 주민구성 등 국가의 연원에 대한 여러 기록들을 실었고, 그 이후는 신라

를 중심으로 왕명으로써 조목명을 삼았다. 이렇게 본다면 기이편의 구성을 초반에는 국가 중심으로, 후반에는 국왕 중심으로 파악한 견해는 일면 타당하다.¹⁴⁾ 그러나 삼국 이후의 조목명 중 왕대가 표시되지 않은 채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로 조목명을 삼은 경우가 보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다. 먼저 이에 해당하는 조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권	조목	권	조목
권1 기이1	延鳥郎 細鳥女	권1 기이1	長春郎 罷郎
	射琴匣	권2 기이2	萬波息笛
	桃花女 鼻荊郎		水路夫人
	天賜玉帶		早雪
	金庾信		處容郎 望海寺

이 중 사건명의 경우 해당 왕대에 일어난 신이한 일들, 그 중에서도 왕의 권위 부각이 가능한 사건을 조목명으로 내세웠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천사옥대」와 「만파식적」조는 왕의 권위와 국가 안정의 의지가 하늘로부터¹⁵⁾ 인정된 것임을 말해준다. 한편 인물명의 경우도 「김유신」조는 김유신이 특정한 왕대에만 활동한 인물이 아닌, 신라 통일기, 왕에 버금가는 활약을 한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조목명으로 등장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연오랑 세오녀」, 「도화녀 비형랑」, 「장춘랑 파랑」, 「처용랑」조의 인물들은 김유신과 같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보기 힘들다.¹⁶⁾

14) 김주성, 2010, 앞의 논문, pp. 505~520.
 15) 「만파식적」조의 경우 용이 등장하지만, 결국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표현을 통해 만파식적 하사의 주체는 하늘임을 알 수 있다.

연오랑과 세오녀는 阿達羅王代의 인물로, 일본으로 건너가 왕이 되었는데, 그들이 일본으로 가자 신라에서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고 한다. 이에 신라의 왕은 일본으로 사신을 보냈고, 연오랑은 사신에게 세오녀가 짝 비단을 주어 신라로 보냈더니 다시금 해와 달의 정기가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 조목은 당시 신라와 일본의 교류와 관련하여 주목된 바 있어 양잠, 제철 등 기술의 일본 전달을 의미하는 것¹⁷⁾ 혹은 당대 日蝕의 상황이 설화로 탄생한 것¹⁸⁾ 등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전달이 신라에게는 해와 달이 빛을 잃은 것에 비유될 만큼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가 또는 日蝕의 상황을 특정 인물의 부재로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등의 의문이 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을 日月과 관련된 祭儀者로 본 견해는¹⁹⁾ 그들의 왕 혹은 국가와의 관련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도화녀와 비형랑에 대해서는 眞智王과의 관련성 속에서 서술되었는데, 비형랑의 신이한 행적과 政事에의 관여, 吉達의 천거 등은 처용의 행적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형랑이

16) 처용을 비롯하여 ‘~郎’이라 명명된 인물들을 모두 화랑으로 보기도 하지만(김기홍, 2001, 앞의 논문 ; 김학성, 1995, 「처용가와 관련 설화의 생성기반과 의미」, 『대동문화연구』30, p. 24 등), 연오랑이나 비형랑의 경우 화랑과 관련지을 수 있는 요소를 찾기 힘들다.

17) 이연숙, 1986, 「연오랑 세오녀에 대한 일고찰」, 『국어국문학』23, pp. 214~221 ; 이영희, 1999, 『노래하는 역사』, 조선일보사.

18) 소재영, 1967, 「연오·세오 설화고」, 『국어국문학』36. 한편 일식현상으로 보기에 아달라왕대 단 1회밖에 일식기사가 보이지 않으므로, 그보다는 왕을 비롯한 지배세력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기도 하였다(이문기, 2013, 「2~3세기 韓半島와 日本列島の 情勢와 交流에서 본 延烏郎 細烏女 說話의 歷史的 背景」, 『동방한문학』57, pp. 165~167).

19) 이명식, 1999, 「延烏郎 細烏女 說話와 日月祭」, 『文化史學』11:12-13.

진지왕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어 이를 龍春에 필적하는 인물 또는 龍春이라고 보기도 한다.²⁰⁾ 그러나 설화 속의 인물을 역사적 특정 인물에 배대하는 것은 『삼국유사』 저술태도로 볼 때 납득하기 쉽지 않다. 즉 『삼국유사』에서는 여러 자료들의 섭렵을 통해 인물 등의 고유명사에 별칭이 있을 경우 ‘或云’ 또는 ‘一云’ 등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龍春이 같은 책 「太宗 春秋公」조, 「皇龍寺九層塔」조에 등장함에도 이와 관련된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은 두 인물 간 동일성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를 특정 인물로 보기보다는 당시 왕의 옆에서 政事를 도운 인물들, 그 중에서도 왕의 의도에 의해 특별히 가까이 한 인물 혹은 집단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설정된 존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장춘랑과 과랑은 『삼국사기』에서도 발견된다.²¹⁾ 태종은 對백제전을 대비한 援軍을 唐에 청하였는데, 唐으로부터의 답이 늦어지자 이를 걱정하고 있던 차에 장춘랑과 과랑이라는 인물이 그 앞에 나타나 唐의 정보를 전해준 것이다. 물론 이때의 장춘랑과 과랑은 현실의 인물이 아닌 죽은 이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비형랑의 경우에서와 같이 왕의 近臣 중에서도 國人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거나 신분을 드러낼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겠다.

처용 역시 龍의 아들로 표현되고 왕의 정사를 도왔던 점, 그

20) 김두진, 1990, 「新羅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改革」, 『震檀學報』69, p. 22 ; 金基興, 1999, 「桃花女·鼻荊郎 설화의 역사적 진실」, 『韓國史論』41·42, pp. 148~149 ; 2000, 「천년의 왕국 신라」, 창작과 비평사, p. 329.

21)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6년. 한편 『삼국유사』 「장춘랑 과랑」조를 앞의 조목인 「태종 춘추공」조에 속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김주성, 2010, 앞의 논문, p. 515).

리고 처용가를 통해 그가 당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서야 國人들에게 받아들여진 점²²⁾ 등은 앞선 인물들의 경우와 동일하다 하겠다.

한편 위 조목들에 나타난 인물들은 대체로 불교와 관련성을 가진다. 이는 기이편 전체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점으로, 흥법편 이하뿐 만 아니라 기이편에도 불교적 사유에 기반한 역사인식과 역사관이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³⁾ 특히 왕은 비형랑과 길달에게 神元寺와 興輪寺 관련 일을 맡기고, 장춘랑과 파랑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명복을 빌기 위해 莊義寺를 창건하며, 처용을 비롯한 용을 위해 望海寺를 건립하는 등 왕의 근시집단들을 불교적으로 포용하거나 혹은 불교 관련 임무를 그들에게 맡김으로써 왕과 국가에 대한 일정한 기여를 독려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렇듯 특정 인물을 조목명으로 내세운 경우, 그들의 활동에서 두 가지 공통점이 찾아진다. 바로 그들이 왕의 近侍的 인물이라는 점과 불교와의 관련성이 보인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물들을 사찰의 건립연원을 중심으로 塔像篇에 편제하지 않고, 인물을 중심으로 기이편에 편제한 이유는 무엇일까.²⁴⁾

22) 후술하겠지만, 처용이 疫神을 물리치고 난 뒤 國人들이 그의 형상을 문에 붙여 사악한 것을 쫓고 경사를 맞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國人이 그의 존재와 역할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3) 김영태, 1974, 『삼국유사의 체재와 그 성격』, 『동국대학교논문집』 13 : 1987, 『신라문화연구』, 민족문화사 ; 김상현, 1997, 『일연의 불교사상』, 『녹원스님고회기념 학술논총』, 불교시대사 ; 박미선, 2016, 『일연의 국왕관』, 『한국사학사학보』33.

24) 본문의 [표]에서 제시된 조목들에 대해 일반 민중들의 역사적 정서와 친숙한 소재들을 조목명으로 탑재시켜 비중 있게 서술하였다는 것은 『삼국유사』가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수용하는 親민중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보여주며, 이러한 민중 친화적인 神異事들

이에는 일연의 당대 정치 및 시대 인식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유사』의 찬술시기에 대해서는 일연과 그 제자들에 의한 공동찬술의 문제와 함께 여러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그러함에도 일연이 찬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과 그에 따라 찬술이 대략 忠烈王代 초기부터 시작되었음은 대체로 동의하는 바이다. 이렇게 본다면 忠烈王代를 바라보는 일연의 시각이 『삼국유사』의 찬술 및 편제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은 짐작 가능하다.

일연의 國王觀 내지 시대인식과 관련한 논고들을 참고한다면,²⁵⁾ 忠烈王代는 고려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대몽항쟁이 끝나고 무신집권기에 약화되었던 왕실의 권위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기였다. 그러나 元의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충렬왕 정권의 노력 역시 필요했던 시기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에서 충렬왕은 즉위 초 일연이 주석하고 있던 毘瑟山 仁弘社를 賜額하여 仁興社라 改名하였다. 仁興社에 대한 사액은 一然의 요청을 忠烈王이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²⁶⁾ 충렬왕과 일연이 직접적 관계를 맺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충렬왕 4년(1277)에 조서를

을 제왕이나 국가 관련 神異事들과 비슷한 선상에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차광호, 2014, 『고려시대의 역사서에 나타난 ‘신이’ 인식』,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pp. 132-134). 그러나 왕과의 관련성이 강조된 양상은 서술의 중심이 민중이 아닌, 왕 등의 지배층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5) 라정숙, 2000, 『일연의 생애와 역사인식』, 『지역학논집』4 ; 김두진, 2002, 『일연의 생애와 저술』, 『전남사학』19 ; 차광호, 2014, 앞의 논문 ; 박미선, 2016, 앞의 논문.

26) 채상식, 1991, 『고려후기불교사연구』, 일조각, p. 122.

내려 일연을 운문사에 주석하게 하였고, 충렬왕 7년(1280)에는 충렬왕이 東征軍을 격려하기 위해 경주에 행차했을 때 行在所에 나아가 설법하였고, 2년 뒤에는 國尊으로 추대되기에 이른다. 일연은 왕권과 밀착되면서 정권에 동조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일연의 시대인식과 정권에 대한 태도가 『삼국유사』의 편목 중에서도 특히 기이편에 다수 반영되어 각 왕대별 조목에 왕의 신성성과 권위를 부각시키는 내용이 기술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태도는 왕의 정책에 동조하는 近侍集團의 중요성 역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중앙에서 이미 활동하던 왕족 및 귀족집단뿐 만 아니라 귀신이나 용 등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던 변방의 혹은 異類의 인물들이 왕을 정점으로 하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그들을 포용하는 방편으로 불교가 이용되었던 점은 일연과 충렬왕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처용랑」조가 기이편으로 편제된 것은 처용이라는 異類적 존재를 近臣으로 영입하여 당대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한 현강왕의 정책과 태도를 강조하고, 나아가 望海寺 창건을 통해 異類 집단을 불교적으로 포용하였던 점을 드러내기 위한 편제라 할 수 있다.

Ⅲ. 「處容郎 望海寺」조의 구조와 내용 분석

1. 현강왕대 政局과 처용설화의 결합

앞서 「처용랑」조의 의미를 편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면, 본 장에서는 구체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본 조목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분적인 생략을 가한 「처용랑」조의 내용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1. 제49대 헌강대왕 때에는 서울에서 海內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장이 잇닿아 있고 초가는 하나도 없었다. 생활소리와 노래가 도로에서 끊이지 않았고, 바람과 비는 사철 순조로웠다. 이때 대왕은 開雲浦[鶴城 서남쪽에 있으니, 지금의 蔚州이다]에 유람하였다. 왕이 장차 돌아가려고 하여 낮에 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짙게 끼어 길을 잃었다. 괴이하여 좌우에게 물으니 일관이 아뢰기를, 이는 東海龍의 조화이니, 마땅히 좋은 일을 행하여 이를 풀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일을 맡은 관원에게 명하여 용을 위하여 근처에 절을 짓게 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구름과 안개가 걷혔으므로 개운포라고 이름하였다.

a-2. 동해의 용은 기뻐하여 일곱 아들을 거느리고 왕의 앞에 나타나 덕을 찬양하여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하였다. 그중 한 아들이 왕의 수레를 따라 서울에 들어와 왕의 政事를 보좌하였는데, 이름을 處容이라고 하였다. 왕은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게 하여 그 뜻이 머무르게 하고자 하였고, 또 級干의 관직을 주었다. 그의 아내는 매우 아름다웠으므로 역신이 그를 흠모하여 사람으로 변하여 밤에 그의 집에 몰래가서 잤다. 처용이 밖에서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곧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났다. ... 이로 인해 나라 사람들은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여서 사악한 것을 피하고 경사를 맞아들이게 되었다.

a-3. 왕은 이미 돌아와 영축산 동쪽 기슭의 경치 좋은 곳을 접지하여 절을 세우고 望海寺라고 하였는데, 또는 新房寺라고도 이름하였으니, 곧 용을 위해 세운 것이다.

a-4. 또 포석정에 행차했을 때 南山神이 왕 앞에 나타나 춤을 추었는데, 좌우는 보지 못했으나, 왕만 홀로 그것을 보았다. ... 또 금강령에 행차했을 때 北岳神이 나타나 춤을 추었으므로

玉刀鈴이라고 이름하였다. 또 同禮殿에서 잔치를 할 때 地神이 나와서 춤을 추었으므로 地伯級干이라고 이름하였다. 『語法集』에 이르기를, 그때 산신이 춤을 추어 바치며 노래를 부르면서 智理多都波都波 등이라고 하였다. 대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알고 많이 도망하여 도읍이 장차 파괴된다는 것을 이른다. 이에 지신과 산신이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알았으므로 춤을 추어 그것을 경고하였는데 나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상서가 나타났다고 여겨 탐락이 더욱 심하였으므로 나라가 마침내 망하였다.²⁷⁾

「처용랑」조의 단락은 위와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그러나 내용 상 a-1과 a-3은 望海寺의 창건과 관련한 것으로 연속된 내용이라 하겠다.²⁸⁾ 이는 a-3의 도입부에 ‘王既還’이라 하여 a-2의 처용 관련 내용이 전개되기 이전에 현강왕이 ‘이미(既)’ 동해로부터 돌아와 望海寺를 세웠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간흐름의 착종은 a-1에서도 확인된다. 즉 개운포라 명명한 이유는 동해용을 위해 절을 세우자 구름과 안개가 걷혔으므로 이름 지어진 것임에도 현강왕이 이미 개운포라 명명된 장소에 유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처용랑」조의 내용은 현강왕의 출유와 개운포 명명 및 望海寺 창건(a-1, a-3), 山神·地神의 현강왕에 대한 경고(a-4) 등 현강왕을 중심으로 한 부분에 처용의 역신 퇴치(a-2) 내용이 삽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7) 『삼국유사』 권2 기이2 處容郎 望海寺.

28) a-2부분이 개운포 명명과 望海寺 창건의 사이에 삽입되었다는 견해는 제시된 바 있다(김수경, 1995, 「고려처용가의 전승과정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2005, 『처용연구전집Ⅳ』, 도서출판 역락, pp. 290-295 ; 전기용, 2005, 「憲康王代의 정치사회와 處容郎望海寺條 설화」, 『신라문화』26, p. 63). 그러나 현강왕대 처용설화가 삽입된 이유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그런데 본 조목의 전체적인 배경이 현강왕대임에도 a-1과 a-4에 보이는 당대의 상황은 배치된 듯 보인다. 즉 a-1에서는 현강왕대가 노래가 끊이지 않는 태평성대였음을 말하고 있으나, a-4에서는 탐락이 심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는 시기라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a-1의 ‘노래가 끊이지 않은 상황’을 탐락이 심한 것으로 보아 현강왕대 신라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삼국유사』 『又四節遊宅』조에도 a-1과 대동소이한 내용이 실려 있고,²⁹⁾ 『삼국사기』 현강왕대의 상황 역시 태평성대로 그려지고 있음을 통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³⁰⁾

실상 신라 하대는 경문왕대 이후 정치적 불안정과 잦은 천재지변으로 몰락의 길에 들어섰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경문왕대에는 재위 시 세 번의 반란이 일어날 만큼 지속적인 모반이 발생하여 차후 왕위에 오를 현강왕의 안위까지도 걱정할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었다. 경문왕 재위 후반기에는 지진과 홍수, 가뭄이 빈발하고 疫疾이 심했다고 하여³¹⁾ 사회적으로도 역시 어려움에 처한 시기였다. 또한 현강왕대 이후 진성여왕대에도 역시 궁핍했던 당대 상황이 발견된다.

29) 『三國遺事』 권1 기이1 又四節遊宅, “第四十九憲康大王代 城中無一草屋 接角連牆 歌吹滿路 晝夜不絕”.

30) 『三國史記』 권11 신라본기11 憲康王 6년, “九月九日 王與左右登月上樓四望 京都民屋相屬 歌吹連聲 王顧謂侍中敏恭曰 孤聞今之民間覆屋以瓦不以茅 炊飯以炭不以薪 有是耶 敏恭對曰 臣亦嘗聞之如此 因奏曰 上卽位以來 陰陽和 風雨順 歲有年 民足食 邊境謐靜 市井歡娛 此聖德之所致也 王欣然曰 此卿等輔佐之力也 朕何德焉”.

31) 『三國史記』 권11 신라본기11 景文王 10년 및 13년, “十年 夏四月 京都地震 五月 王妃卒 秋七月 大水 冬無雪 國人多疫 … 十三年 春 民饑且疫 王發使賑救”.

b. 나라 안의 여러 州와 郡에서 공물과 조세를 보내오지 않아 나라의 창고가 텅비어 國用이 궁핍하게 되었으므로 왕이 使者를 보내 독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도적들이 곳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났다.³²⁾

위 사료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궁핍이 정치적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그 이전 시기인 현강왕대 역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³³⁾ 실상 a사료의 밑줄 친 부분을 통해 용으로 대변된 海神이 조화를 부렸다는 점과 함께 南山神·北岳神 등 山神, 그리고 地神 등이 모두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점은 현강왕대의 혼란한 상황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강왕의 울산지역으로의 出遊는 동해안 지역의 민심수습과 이를 위한 종교적 행위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³⁴⁾ 그럼에도 현강왕대 상황을 태평성대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현강왕대의 기사 중 다음의 사실이 주목된다.

c. 3년 정월에 우리 太祖大王이 松岳郡에서 탄생하였다.³⁵⁾

고려 태조 왕건의 탄생에 대해 『고려사』에도 唐 乾府 4년

32) 『三國史記』 권11 신라본기11 眞聖王 3년, “三年 國內諸州郡不輸貢賦 府庫虛竭 國用窮乏 王發使督促 由是 所在盜賊蜂起”.

33) 한편 현강왕대의 태평성대를 인정하며 a-1을 경문왕대 이후 오랜 혼란 끝에 맞이한 평화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꼈을 것임을 반영하는 기사로 보기도 한다(김기흥, 2001, 앞의 논문, p. 133).

34) 『삼국유사』에서 ‘遊’라는 표현은 대개 종교적인 활동으로 파악된다(전기웅, 2005, 앞의 논문, p. 63).

35) 『三國史記』 권11 신라본기11 憲康王 3년, “三年 春正月 我太祖大王 生於松岳郡”.

(877)이라 기록되어,³⁶⁾ 현강왕대 왕건이 태어났음을 알려준다. 이것이 바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공통으로 현강왕대를 태평성대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라 할 수 있는데, 왕건이 태평성대에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왕건이 태어남으로써 태평성대가 되었음을 의도한 서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앞서 일연의 고려에 대한 인식의 틀이 기이편의 편제에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처용랑」조의 내용에서도 이러한 고려적 시각이 발견되는 것이다.

『삼국유사』의 내용 중에는 고려시대의 상황을 알려주는 부분이 다수 발견된다. 즉 고려시대의 사건이나 상태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기사는 230여 건이 있는데, 단순한 역사지명의 고증에서부터 고려시대 각 시기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³⁷⁾ 특히 일연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한 여러 유적이나 유물의 고려 당대 양상을 기존 수집된 자료에 부연할 정도로³⁸⁾ 『삼국유사』를 통해 단순한 자료 수집의 차원을 넘어 찬술 당시의 상황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일연은 왕건의 출생과 고려의 건국 등의 사실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불안정했던 현강왕대 정국 속에서 처용이라는 존재의 설정이 필요했던 것은 현강왕과 魏弘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³⁹⁾ 위홍은 경문왕의 親弟로, 경문왕을 보필하며 왕권강화에

36) 『高麗史』 권1 世家1에도 “唐乾符四年丁酉正月丙戌 生於松嶽南第”라 하였다.

37) 金泰植, 1987, 『三國遺事에 나타난 一然의 고려시대인식』, 『蔚山史學』1, p. 23.

38) 대표적으로 『三國遺事』 권3 탐상4 「前後所將舍利」조가 참고된다.

39) 현강왕이 魏弘의 보좌를 받았고(이기동, 1984, 『신라 골품제도와 화랑도』, 일조각, p. 74 ; 조범환, 2003, 『성주산문과 신라왕실』, 『신라 선종연구』, 일조각, p. 128 ; 권영오, 2004, 『김위홍과 진성왕대 초기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나아가 경문왕대 그는 兵部令이었고 또한 재상의 위치에 있었으며,⁴⁰⁾ 헌강왕 즉위년, 上大等の 지위에 오른다.⁴¹⁾ 경문왕 때에도 그러했듯 어린 나이에 즉위한 헌강왕에게는 그의 존재가 지원군이면서도 견제의 대상이 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헌강왕은 재위 4년, 親政體制의 구축을 기도한다.⁴²⁾ 唐 僖宗으로부터 신라왕으로 정식 책봉된 것을 계기로, 헌강왕은 나라의 동쪽 州·郡을 순행하였다. 아울러 閱兵 의식과 함께 활쏘기를 관람하였는데,⁴³⁾ 이러한 행보들은 天子의 親行과 같은 목적을 띠는 것으로, 헌강왕의 親政 의지를 표명한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헌강왕의 巡幸과 관련한 다음의 사료가 주목된다.

d. 3월에 왕이 나라 동쪽의 州郡을 巡幸할 때,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네 사람이 御駕 앞에 나타나 歌舞를 하였는데, 그

정국 운영, 『대구사학』76, p. 47), 당대 정치를 주도하였다고 본 견해가 있다(宋銀日, 2005, 『신라하대 憲康王의 친정체제 구축과 魏弘』, 『신라사학보』5, pp. 82~95).

40) 『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 “監脩成塔事 守兵部令 平章事 伊干 臣 金魏弘”. 위홍이 경문왕대부터 진성왕 2년의 사망시까지 상대등과 병부령을 겸했다는 견해가 있다(申濤植, 1984,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일조각).

41) 『三國史記』 권11 신라본기11 憲康王 즉위년, “憲康王立 … 卽位 拜 伊滄魏弘爲上大等”.

42) 宋銀日, 2005, 앞의 논문, pp. 95~110.

43) 실상 헌강왕이 閱兵을 행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신라에서 왕이 활쏘기를 관람하는 행위는 대체로 閱兵의식이 있는 후에 행해진 것으로 볼 때 “동 10월에 왕이 遵禮門에 나가 활쏘는 것을 구경하였다(『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헌강왕 5년)”는 기록이 閱兵을 행했을 것임을 추측하게 한다(宋銀日, 2005, 앞의 논문, pp. 99~103).

모양이 해괴하고 衣冠이 괴이하여 당시 사람들이 山海精靈이라 하였다.⁴⁴⁾

d사료는 처용에 대한 다른 전승으로도 파악되는데, 이는 현강왕의 친정체제 구축에 일조할 새로운 세력과의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처용으로 대변되는 세력은 앞서 기이편의 편제의도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왕의 근시집단 이면서도 기존의 세력과는 다른 새로운 인물들로 볼 수 있다. 이에 기존 세력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용의 子弟로 표현하여 용의 권위를 빌리고, 疫疾과 같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물로 표현하였던 것이다.⁴⁵⁾

결국 그들이 현강왕의 근시집단으로 받아들여진 사실은 앞서 a-2에서 나라 사람들이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였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비단 疫神의 퇴치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처용이라는 인물로 표현된 집단을 國人들이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현강왕대 처용설화의 발생은 현강왕대의 위기를 타개하고 왕을 보좌할 새로운 세력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다양한 성격의 근시집단을 통해 혼란한 정국을 타개하고 왕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던 『삼국유사』 찬자의 편제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44) 『三國史記』 권11 신라본기11 憲康王 5년, “三月 巡幸國東州郡 有不知所從來四人 詣駕前歌舞 形容可駭 衣巾詭異 時人謂之山海精靈”.

45) 왕이 동해변으로 순수하였던 점은 『삼국유사』 「백률사」조에도 보인다. 이때 동해변에 있었던 狄賊이라는 세력을 鞞鞫로 보거나 혹은 反王의 세력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본 조목의 이해에 참고할 만하다(辛善惠, 2015, 『『삼국유사』 탐상편 『백률사』조의 종합적 검토』, 『신라문화제 학술발표논문집』36).

2. 望海寺와 新房寺의 창건

望海寺는 울산의 영축산, 즉 문수산 자락에 그 터가 있었으며, 1962년 중창되어 대웅전, 요사채 등을 갖춘 사찰이 되었다. 望海寺가 이곳에 자리잡은 연원은 앞서 제시한 「처용랑」조의 a-1과 a-3부분에 자세하다. 해당 부분만을 다시 한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 일을 맡은 관원에게 명하여 용을 위하여 근처에 절을 짓게 했다. ... 왕은 이미 돌아와 영축산 동쪽 기슭의 경치 좋은 곳을 점지하여 절을 세우고 望海寺라고 하였는데, 또는 新房寺라고도 이름하였으니, 곧 용을 위해 세운 것이다.⁴⁶⁾

현강왕은 자신의 巡幸 시 나타난 동해용의 조화를 해소하고자 용이 출현한 개운포 근처에 절을 지었다. 그 후 영축산에 좋은 터를 골라 용을 위해 望海寺를 지었는데, 이는 新房寺라고도 불렀다는 것이다. 이때 대체로 望海寺와 新房寺는 영축산에 지어진 동일한 사찰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렇게 본다면 ‘望海’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찰이 자리한 영축산은 바다와 관련짓기 힘든 장소이며, ‘新房’과의 명칭적 유사성도 찾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 있듯이 용의 출현과 함께 개운포 근처에 절을 지은 사실은 동해에서 왕경으로 돌아와 영축산에 望海寺를 지은 사실과 분리되어야 한다. 동해의 용과 관련해서 현강왕은 두 곳에 사찰을 지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개운포 근처의 절은 이곳에 후대에 處容岩으로 불린 聖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⁴⁷⁾ 처용리 부근의 처용암지를 사찰터로 추측하고 望海

46) 『三國遺事』 권2 기이2 處容郎 望海寺, “勅有司 爲龍窟佛寺近境 … 王旣還 乃卜靈鷲山東麓勝地置寺 曰望海寺 亦名新房寺 乃爲龍而置也”.

寺를 신라의 산악신앙이 불교와 융화되어 산악사원의 경향이 성해진 이후 세워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⁴⁸⁾ 이러한 견해는 개운포의 절과 영축산의 망해사를 분리하여 이해 하였던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望海寺가 新房寺라 불린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용을 위해 두 개의 사찰을 건립하였음은 오히려 ‘新房’이라는 명칭을 통해 명확해진다. 기존 연구에서는 ‘新房’이라는 명칭이 불교와 관련성이 적다고 보면서 이를 현강왕이 울산 지역 유력자의 딸과 하룻밤을 보내 아들 嶢를 얻게 된 장소로 보았다. 즉 현강왕의 新房 역할을 했던 帷宮, 즉 천막으로 된 行在所가 있었던 곳에 절을 지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는데,⁴⁹⁾ 이는 ‘新房’이 고려시대까지도 혼인 첫날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지 않았던 점에서 일찍이 비판된 바 있다.⁵⁰⁾ 이와 함께 이를 울산 개운포 지역이 현강왕의 巡狩와 望海寺 창건으로 ‘새롭게 정화된 지역’이 되어 여기에 절이 창건되었음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보는 견해도 최근 제시되었으나,⁵¹⁾ 여전히 望海寺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新房’이 사찰의 명칭인 점에서 불교적

47) 『世宗實錄』 권150 地理志 慶尙道 蔚山郡, “處容岩 在郡南三十七里 開雲浦中 世傳新羅時有人出其上 狀貌奇怪 好歌舞 時人謂之處容 今鄉樂有處容戲” ; 『大東地志』 권7 慶尙道 蔚山, “開雲浦南二十五里 新羅憲康王五年 出遊鶴城 至海浦 遇異人處容者 卽此地浦邊 有處容岩 又有舡所” 등.

48) 金宅圭, 1974, 『신라 시대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pp. 262~266.

49) 김기흥, 2001, 앞의 논문, pp. 140~141.

50) 전기웅, 2005, 앞의 논문, p. 70 주34).

51) 강석근, 2016, 『삼국유사』 『처용랑望海寺』조 깊이 읽기』, 『공연문화연구』32, pp. 476~478.

으로 접근하여야 하는데, 이때 각종 계율에 나타난 ‘新房’의 사례가 주목된다.

f-1. 善來阿姨 行道不疲極耶 居士即請諸比丘尼 在前行從後而歸 到家中已 與好新房床褥臥具 與煖水洗足與塗足油 與非時漿 暮然燈火安慰問訊言 阿姨 安隱住⁵²⁾

f-2. 若房舍故壞 應六年立作 若新房舍 應十二年立作 佛言 從今 知房舍人 應三事自恣⁵³⁾

房舍란 출가자들의 거주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新房’이란 房舍를 새롭게 짓거나 혹은 단월 등 재가신도로부터 보시 받은 주거 및 수행의 공간을 의미한다. f-1은 후자를, f-2는 전자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즉 房舍는 사찰과 동일한 의미라 생각되므로, ‘新房’이란 ‘新房舍’의 줄임말로, 새롭게 지어진 사찰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결국 新房寺란 용의 출현을 계기로 창건된 개운포 근처의 절을 영축산으로 옮겨 새롭게 개창하였음을 표현한 명칭인 것이다.

그렇다면 望海寺란 이미 개운포에 절을 창건할 당시의 명칭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이 영축산으로 옮겨지면서 望海寺라는 이름과 함께 新房寺라고 불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52) 『摩訶僧祇律』 권12(T22, p.330b16-20). ‘新房’의 용어를 확인하기 위해 본문에 원문을 제시하였다.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잘 오셨습니다. 누이들이여, 길 다니기에 피로가 심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거사가 즉시 여러 비구니들을 청하여 앞에서 가게 하고 자신은 뒤에서 따라왔으며, 자기 집에 이르러서는 좋은 새 방과 걸상과 요와 와구들을 주고 따뜻한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발에 바르는 기름을 주었으며 간식의 마실 것을 차려오고 밤에는 등불을 켜으며 마음 편하게 위로하며 인사하여 말하였다. ‘누이들이여, 편히 머무시오.’

53) 『十誦律』 卷34(T23, p.248a8-9).

때 비로소 산자락에 위치한 사찰의 이름으로 望海寺가 사용된 이유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왜 망해사를 영축산으로 옮겼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영축산은 석가모니의 설법장소로 유명한 인도 王舍城에 있던 산으로, 울산의 영축산은 여기서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⁵⁴⁾ 특히 석가모니는 이곳에서 『법화경』을 설법하였는데, 이러한 영향에서 신라에서도 문무왕대 朗智, 원성왕대 緣會 등이 이곳에 은거하며 『법화경』을 강론하거나 『법화경』을 이용한 수행을 하였다.

또한 신라 때 영축산에 용과 관련한 사찰이 다수 건립되었음이 확인된다.

g-1. 慈藏이 五臺에서 받은 舍利 百粒을 기둥 속과 通度寺 戒壇과 大和寺 塔에 나누어 봉안하여 池龍의 請에 맞도록 하였다[大和寺는 阿曲縣 남쪽에 있으니 지금 울주땅인데 또한 자장스님이 창건한 것이다].⁵⁵⁾

g-2. 산의 동쪽에 太和江이 있으니 중국 太和池 龍의 植福을 위하여 設한 것이므로 龍淵이라 한 것이다.⁵⁶⁾

일련의 g사료는 울산 太和寺의 창건연기로, 당시 신라가 고려·백제와의 전쟁으로 위난이 닥쳤을 때 그러한 위난을 알려 주고 구원해주고자 한 太和池의 용을 위해 慈藏이 영축산에 사

54) 김영태, 1977, 『法華信仰의 傳來와 그 展開』, 『韓國佛敎學』3.

55) 『三國遺事』 권3 塔像4 皇龍寺九層塔, “慈藏以五臺所授舍利百粒 分安於柱中并通度寺戒壇及大和寺塔 以副池龍之請[大和寺在阿曲縣南今蔚州 亦藏師所創也].”

56) 『三國遺事』 권5 괴은8 朗智乘雲 普賢樹, “山之東有大和江 乃爲中國大和池龍植福所創 故云龍淵”.

찰을 건립한 것이다. 존망의 위기에 처한 신라가 용에 의해 구원된 것으로 표현되고, 그를 위해 영축산에 사찰을 건립한 것은 望海寺의 창건연기와 대동소이하다.⁵⁷⁾

한편 영축산과 용, 그리고 사찰 창건과의 관련성은 고려 때에도 발견된다.

h. 本朝(고려-필자주) 屈弗池의 용이 왕에게 현몽하여 청하기를 영축산에 藥師道場을 열어 바닷길을 평화롭게 하라 하였다.⁵⁸⁾

이렇듯 영축산과 용의 관련성은 고려시대까지도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관련성은 『법화경』에 나타난 용의 양상과도 관련될 것이다.⁵⁹⁾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자장의 시기를 전후하여 호국룡을 기리기 위한 사찰이 세워짐으로써 영축산과 용의 관련성이 부각되었고, 이후 『법화경』의 신앙처가 되었던 것이다. 望海寺 역시 그러한 신앙의 연장선상에서 개운포 근처에 있던 사찰을 영축산으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맺음 말

「처용랑」조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처용가를 중심으로 국문학

57) 태화사를 호국 사찰로 보아, 헌강왕이 이곳에서 바다에 望祭하였을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이유수, 2005, 「헌강왕 순행과 望海寺·처용랑」, 『처용연구전집IV』, 도서출판 역락, pp. 712~715).

58) 『三國遺事』 권5 감통7 仙桃聖母隨喜佛事, “本朝屈弗池龍 託夢於帝 請於靈鷲山長開藥師道場 □平海途”.

59) 강대공, 2014, 「동북아시아의 대승불교경전에서 인도불교 나가(naga)전설의 재구성」, 『인도연구』19.

적 혹은 민속학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었다. 역사적으로 접근한 연구 역시 진행되었지만, 처용의 실체를 특정 인물에 배대하는 등 조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를 위해서는 『삼국유사』 기이편의 편제상 특징을 고찰하여 「처용랑」조가 기이편에 편제된 이유를 살피는 것으로부터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 즉 기이편은 고조선에서부터 후삼국의 시기까지를 국가 및 국왕 중심으로 서술 및 편제함으로써 『삼국유사』의 찬술시기인 고려 당대에 필요했던,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정국의 조성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찬자의 의도는 중앙·지방을 아우르는 근시집단의 필요성을 그들의 존재를 조목명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반영되었다. 즉 기이편의 편제와 조목명 설정에 고려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특히 「연오랑 세오녀」, 「도화녀 비형랑」, 「장춘랑 파랑」, 「처용랑」조를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처용랑」조는 조목명에 노출된 望海寺에 대한 창건연기라는 측면이 아니라 현강왕과 처용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까닭에 기이편에 편제되었다. 처용은 중앙에서 활동하는 세력이 아닌, 새로운 세력의 대명사로서 왕의 근신이 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존재인 것이다. 이에 처용은 용의 아들로 설정되어 신라를 지키는 호국룡의 권위를 빌었고, 당시 빈번히 발생한 천재지변과 역질 등의 전염병을 퇴치한 인물로 표현되었다.

한편 「처용랑」조에 나타난 현강왕대 政局에 대한 서술에도 고려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현강왕대를 태평성대로 표현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실상 경문왕대 이후 진성여왕대에 이르기까지 신라는 잦은 천재지변과 이에 따른 궁궐, 실정 등으로 반란이 빈번히 일어나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현강왕대 政局 역시 불안정하였을 것임에도 『삼국유사』에는 이와

는 반대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표현에는 현강왕대 王建이 탄생하였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즉 王建은 태평성대에 태어났으며, 그가 태어남으로써 다른 시기와는 다른 태평성대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말해 준다 하겠다.

그렇다면 실상 불안정한 정국이 조성되었던 현강왕대를 무대로 처용설화가 탄생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당시 정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魏弘과 현강왕의 관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魏弘은 경문왕대 이후 兵部令, 上大等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정점을 이룬 인물이다. 이에 그는 경문왕, 현강왕 등 왕권을 지원하는 인물이기는 하였으나, 언제든 왕권을 넘볼 수 있는 견제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현강왕은 장기간 왕권의 정점에 있던 위홍에 대한 견제책으로서 중앙의 세력이 아닌, 변방의 세력을 근시로 삼아 親政體制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나라 동쪽으로의 巡幸을 단행하고, 호국용의 아들에 비유된 새로운 세력들을 포섭하였다. 이것이 바로 현강왕대 政局과 처용설화가 결합된 이유라 하겠다.

『처용랑』조에서 또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望海寺의 창건에 대한 것이다. 『처용랑』조는 현강왕의 동해로의 出遊와 개운포로의 명명, 그리고 용을 위한 望海寺 창건 등의 내용에 처용설화가 삽입된 구성을 보이는데, 이 중 望海寺의 경우 그간의 연구에서는 용을 위해 세워졌고, ‘바다를 바라본다’ 혹은 ‘바다에 제사지낸다’는 의미를 지닌 ‘望海’로써 사찰이름을 지었음에도 그것이 영축산에 창건된 점이 설명되지 않았다. 아울러 別稱으로 기재된 ‘新房寺’와의 관련성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런데 『처용랑』조의 구조 분석을 통해 현강왕은 용을 위해 개운포 근처에 먼저 절을 세웠고, 이후 이를 영축산으로 옮겼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新房'이 '새롭게 옮겨 지은 사찰'이라는 불교적인 의미를 가진 '新房舍'의 줄임말이라는 점에서도 명확해진다. 즉 개운포에 望海寺라는 이름으로 먼저 사찰이 세워진 후 호국통을 위한 다수의 사찰이 세워진 영축산으로 옮겨지면서 '新房寺'라는 별칭이 붙었던 것이다. 영축산이 『법화경』의 설법장소였다는 점과 이곳에 용과 관련한 다수의 사찰이 세워졌다는 점에서 望海寺의 移建 이유가 설명된다고 하겠다.

이렇듯 「처용랑」조에 대해 처용설화가 현강왕대 사실로 입전된 점, 그리고 望海寺와 新房寺의 관계 등에 주목하여 살펴본 있는데, 이를 통해 『삼국유사』에 반영된 고려적 시각과 사찰 창건과 신앙과의 관계 등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논문투고일 : 5월 4일 논문게재확정일 : 5월 9일]

[참고문헌]

1. 자료 및 단행본

- 『三國遺事』
- 『三國史記』
- 『高麗史』
- 『世宗實錄』
- 『摩訶僧祇律』
- 『十誦律』
- 『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

2. 논문류

- 강대공, 2014, 「동북아시아의 대승불교경전에서 인도불교 나가(nāga)전설의 재구성」, 『인도연구』19.
- 강석근, 2016, 「삼국유사 「처용랑望海寺」조 깊이 읽기」, 『공연문화연구』32.
- 권영오, 2004, 「김위홍과 진성왕대 초기 정국 운영」, 『대구사학』76.
- 金基興, 1999, 「桃花女·鼻荊郎 설화의 역사적 진실」, 『韓國史論』41·42.
- 金基興, 2000, 『천년의 왕국 신라』, 창작과 비평사.
- 金基興, 2001, 「신라 處龍說話의 역사적 진실」, 『역사교육』80.
- 김동욱, 1969, 「삼국유사 해제」, 『한국의 명제』, 현암사.

- 김두진, 1990, 「新羅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改革」, 『震檀學報』69.
- 김두진, 2002, 「일연의 생애와 저술」, 『전남사학』19.
- 金文泰, 1989, 「『三國遺事』의 體裁와 性格」, 『陶南學報』12.
- 김상현, 1997, 「일연의 불교사상」, 『녹원스님교회기념 학술논총』, 불교시대사.
- 김수경, 1995, 「고려처용가의 전승과정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김영수, 1964, 「처용무와 처용가」, 『불교학보』2.
- 김영태, 1974, 「삼국유사의 체재와 그 성격」, 『동국대학교 논문집』13.
- 김영태, 1977, 「法華信仰의 傳來와 그 展開」, 『韓國佛敎學』3.
- 김영태, 1987, 『신라문화연구』, 민족문화사.
- 김주성, 2010, 「삼국유사 기이편 신고찰」, 『한국학논총』34.
- 金泰植, 1987, 「三國遺事に 나타난 一然의 고려시대인식」, 『蔚山史學』1.
- 金宅圭, 1974, 『신라 시대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 김학성, 1977, 「삼국유사 소재설화의 형성 및 변이과정 試考」, 『冠嶽大語文研究』2.
- 김학성, 1995, 「처용가와 관련설화의 생성기반과 의미」, 『대동문화연구』30.
- 라정숙, 2000, 「일연의 생애와 역사인식」, 『지역학논집』4.
- 박미선, 2016, 「일연의 국왕관」, 『한국사학사학보』33.
- 徐大錫, 1975, 「처용가의 무속적 고찰」, 『한국학논집』2.
- 소재영, 1967, 「연오·세오 설화고」, 『국어국문학』36.
- 孫晋泰, 1930, 「處容郎 傳説考」, 『新生』18.

- 宋銀日, 2005, 「신라하대 憲康王의 친정체제 구축과 魏弘」, 『신라사학보』5.
- 辛善惠, 2015, 「『삼국유사』 탐상편 『백률사』조의 종합적 검토」,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36.
- 申滢植, 1984,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일조각.
- 이기동, 1984, 『신라 골품제도와 화랑도』, 일조각.
- 이기백, 1976,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의의」, 『한국의 역사 인식(상)』, 창작과 비평사.
- 이기백, 1984, 「삼국유사 기이편의 고찰」, 『신라문화』1.
- 이명구, 1982, 「處容歌 研究」, 『高麗歌謠研究』, 새문사.
- 이명식, 1999, 「延烏郎 細烏女 說話와 日月祭」, 『文化史學』 11·12·13.
- 이문기, 2013, 「2~3세기 韓半島와 日本列島의 情勢와 交流에서 본 延烏郎 細烏女 說話의 歷史的 背景」, 『동방한문학』57.
- 이연숙, 1986, 「연오랑 세오녀에 대한 일고찰」, 『국어국문학』23.
- 이영희, 1999, 『노래하는 역사』, 조선일보사.
- 李龍範, 1969, 「處容說話의 考察」, 『진단학보』32.
- 李佑成, 1969, 「三國遺事所載 處容說話의 一分析」, 『金載元 博士回甲紀念論叢』, 을유문화사.
- 이유수, 2005, 「헌강왕 순행과 望海寺·처용랑」, 『처용연구 전집IV』, 도서출판 역락.
- 전기웅, 2005, 「憲康王代의 정치사회와 '處容郎望海寺'條 설화」, 『신라문화』26.
- 정수일, 1989, 「아랍-무슬림들의 신라내왕과 처용」, 『처용연구논총』, 울산문화원.
- 조범환, 2003, 「성주산문과 신라왕실」, 『신라선종연구』, 일조각.

- 차광호, 2014, 「고려시대의 역사서에 나타난 '신이' 인식」,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 채상식, 1991, 『고려후기불교사연구』, 일조각.
- 황패강·강재철·김영수 편, 1984, 「鄉歌研究史序說」, 『鄉歌, 古典小說關係論著目錄』, 단국대출판부.